



22일 광주일고 야구장에서 열린 무등리그 자연환경과 GN리버스 경기. 1초 2사 중전안타로 진루한 자연환경 신경수가 최용희 타석때 2루 도루에 성공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무등리그 로즈 스나이퍼스 vs 자연환경 ... 광일리그 W웨딩컨벤션 vs 쏘울 스토리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 ‘지존’ 대결

제7회 무등기 결승 진출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인들의 지존을 가리는 ‘무등기’ 마지막 무대의 상대가 결정됐다.

광주일보사·아시아문화가 주최하는 아로마라이프배 제7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준결승전이 22일 광주일고 야구장에서 진행됐다.

무등리그에서는 로즈 스나이퍼스와 자

연환경이 결승전 티켓을 획득했고, 광일리그의 결승전은 W웨딩컨벤션과 쏘울 스토리의 대결로 압축됐다.

이번 무등기 개막전 승자였던 로즈 스나이퍼스는 마지막 승리까지 노리게 됐다. 준결승에서 금호 허리케인을 만난 로즈 스나이퍼스는 1회초 4점을 뽐으며 기선을 잡았다. 2회에도 3점을 보태며 7-1을 만든 로즈 스나이퍼스는 3회 대거 7실점을 하면서 7-8역전을 허용했지만, 5회 재역전극

을 연출하면서 10-8 승리를 거뒀다.

자연환경은 GN리버스와 마지막까지 알 수 없는 힘겨루기를 한 끝에 4-3 신승을 거뒀다. 1회 선취점을 뽐은 자연환경이 3·4·5회 각각 1점씩 보내며 4-0에서 마지막 7회 수비에 들어갔다. 침묵하던 GN리버스가 7회말 3점을 뽐으며 막판 추격에 나섰지만 승부를 뒤집지는 못했다.

W웨딩컨벤션은 화끈한 공세로 광일리그 정상을 두드리게 됐다. 레드위리어스와

준결승전을 치른 W웨딩컨벤션은 1회부터 3점을 뽐으며 공격에 시동을 걸었다. 2회에 6점을 뽐으면 박이닝을 만든 W웨딩컨벤션은 4회에도 6득점에 성공하면서 19-5의 대승을 거뒀다. W웨딩컨벤션의 정승환은 3회 솔로포를 터트리면서 결승행을 자축했다.

무등기 결승전 마지막 티켓은 쏘울 스토리의 차지가 됐다. 광일리그 준결승 마지막 경기에서 카멋진팀V-KOOL을 상대

한 쏘울스토리는 0-5로 뒤진 4회 뒤통수 발뒤에 나섰다. 4회초 4점을 뽐은 쏘울스토리는 5회와 6회에도 뜨거운 화력을 과시하며 14-5로 결승행을 확정했다.

한편 광주광역시야구소프트볼협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광주광역시체육회, 전라남도체육회가 후원한다. 또 (주)아로마라이프와 KIA 타이거즈가 지역 사회인 야구인들의 ‘가을 잔치’에 함께 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무등기 준결승전

▲1경기(5회 시간제한승)
로즈스나이퍼스 43003XX-10
금호허리케인 10700XX-8
△승리투수: 김광호

▲2경기
자연환경 1001110-4
GN리버스 0000003-3
△승리투수: 남준성

◇광일리그 준결승전

▲1경기(4회 콜드승)
W웨딩컨벤션 3646X-19
레드위리어스 2111X-5
△승리투수: 박성용 △홀런: 정승환(3회 1점·W웨딩컨벤션)

▲2경기(6회 시간제한승)
쏘울스토리 000446-14
카멋진팀V-KOOL 023000-5
△승리투수: 김태호

타이거즈 ‘KS 불패신화’ 잇는다

2017 한국시리즈 25일 광주서 1차전 ... KIA V11 도전

두산과 사상 첫 맞대결 ... 역대 최고의 빅매치 예고

2017 KBO 프로야구 마지막 잔치가 사상 첫 ‘단군 매치’로 치러진다.

‘정규시즌 챔피언’ KIA 타이거즈가 25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2017 KBO 플레이오프 승자 두산 베어스와 한국시리즈 1차전을 갖는다.

두산은 지난 21일 마산구장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의 플레이오프 4차전에서 3연타석 및 4홈런으로 포스트시즌 한 경기 최다 홈런 신기록을 갈아치운 오재일의 활약 속에 14-5 대승을 거뒀다. 1차전 패배 후 내리 3연승을 달린 두산은 이 승리로 한국시리즈 티켓을 거머쥐면서, 한국시리즈 3연패이자 통산 6번째 한국시리즈 우승에 도전하게 됐다.

또 이번 결과에 따라 한국시리즈에서 처음 호랑이와 곰이 맞대결을 벌이게 됐다.

두 팀은 앞서 포스트 시즌에서도 두 차례 뒤통수에 맞대결을 벌였다.

1987년 플레이오프에서는 KIA 전신인 해태가 3승 2패로 OB를 꺾고 한국시리즈에 올라 난적 삼성 라이온즈를 꺾고 V3를 이뤘다. 두 번째 만남은 2004년 준플레이오프 무대에서였다. KIA는 리오스와 김진우를 내세웠지만 두산에 2연패를 당하며 고개를 숙였다.

한국시리즈에서 처음 불게 되는 KIA와 두산은 각각 전반기와 후반기를 대표하는 팀이었다. KIA는 ‘해결사’ 최형우를 중심으로 한 다이나마이트 타선으로 8경기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이라는 미국 메이저리그를 뛰어넘는 폭발적인 기록을 작성했다. 전반기 마지막 시리즈에서 2위 NC 다이노스에 싸늘이 승을 거두며 8경기 차 1위로 2017 시즌 반환점을 돌기도 했다.

반면 두산은 시즌 전반기 크고 작은 부상과 주축 선수들의 부진 속에 ‘디펜딩 챔피언’의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KIA와 13경기 차 5위로 전반기를 마무리했었다.



그러나 두산은 무서운 뒷심으로 후반기 최강자가 됐다. 두산이 KIA를 무섭게 추격하면서 시즌 최종전이 되어서야 1위 팀이 결정될 정도였다.

올 시즌 KIA가 유일하게 상대전적에서 열세를 기록한 팀 역시 두산이다. 지난 9월 22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치러진 두산과의 시즌 16차전에서 KIA는 0-6 영봉패를 당하면서 7승 1무 8패로 열세를 기록했다.

앞선 기록으로는 KIA의 우승 확률이 높다. 최근 15시즌에서 한국시리즈 직행팀이 우승한 경우는 모두 14번에 이른다. 여기에 ‘호랑이 군단’은 한국시리즈 불패 신화를 가지고 있다. 지난 2009년 SK 와이번스와의 한국시리즈 7차전에 터진 나지완의 끝내기 홈런으로 ‘V10’을 이루는 등 한국시리즈에 진출한 10번의 가을을 모두 우승으로 장식했었다. 큰 경기에 강한 호랑이들이었다.

하지만 전체적인 전력을 살펴보면 두산에 무게가 실린다.

해태·양현종으로 구성된 KIA의 ‘20승



해태

듀오’에 맞서는 니퍼트, 장원준, 보우덴, 유희관 ‘판타스틱 4’가 있다. 이들은 지난해 한국시리즈 우승을 이끌었던 주역들이다. 여기에 시즌 최종전까지 김선빈의 ‘타격왕’ 자리를 추격했던 박민우와 포스트시즌 4홈런에 빛나는 오재일 등 만만치 않은 화력을 보유하고 있고, 주전·백업 가릴 것

없는 탄탄한 야수진도 큰 무기다. 무엇보다 3년 연속 한국시리즈 무대를 밟는 두산의 경험이 무섭다.

KIA가 후반기 1위를 놓고 피 달리는 싸움을 했던 두산을 상대로 한국시리즈 불패 신화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강등 탈출 -4점

‘학범슨의 매직’ 시작됐다

상주에 1-0 승...잔류 발판

프로축구 광주 FC가 시즌 첫 연승에 성공하면서 ‘잔류쇼’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광주 FC가 22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7 K리그 클래식 35라운드 상주 상무와의 경기에서 전반 40분에 터진 ‘캡틴’ 송승민의 결승골로 1-0 승리를 거뒀다.

스플릿 라운드 두 번째 경기에 나선 광주는 앞선 전남전 4-2승에 이어 다시 한번 승자가 되면서 잔류 불씨를 더욱 키웠다. 앞선 맞대결에서 12위 광주(승점 29)에 일격을 당했던 11위 전남(승점 33)은 35라운드 포항전에서도 1-3로 지면서, 두 팀의 격차는 4점 차까지 줄어들었다.

앞으로 남은 3경기에서 충분히 역전극을 연출할 수 있는 승점 차가 됐다. 여기에 9위 상주와 10위 인천 유나이티드도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면서 승점 34점으로 광주의 가시권에 있다.

조심스럽게 경기를 펼쳐가던 전반 20분 광주에 가슴 절절한 장면이 나왔다.

이한도가 상주 캠퍼스를 막으려다가 주심에게 퇴장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비디오 판독(VAR) 결과 경고로 조정 되면서 한숨 돌릴 수 있었다.

위기의 순간 ‘캡틴’의 힘이 발휘됐다. 전반 40분 본즈의 발을 떠나 김민혁에게 이어진 공이 송승민 앞으로 향했다. 송승민은 골키퍼 유상훈을 제친 뒤 오른쪽 골망을 흔들면서 시즌 5호골을 기록했다.

후반 7분 상주 윤영선의 슈팅에 광주의 골망이 출렁이기도 했지만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다. 이후 송승민이 다시 한번 상주를 위협했다. 후반 13분 송승민이 매서운 슈팅을 날렸고, 이번에는 아쉽게 골키퍼를 맞고 나왔다.

상주의 반격이 만만치 않았다. 후반 25분 김병오의 왼발 슈팅이 골대를 맞으면서 광주에는 삼점 위기를 넘기기도 했다.

후반 19분 나상호를 대신해 투입된 완델손이 4경기 연속 골 사냥에 나서는 등 광주는 마지막까지 추가 득점에 나섰지만 상주의 골대는 열리지 않았다. 하지만 광주는 송승민의 골을 지키면서 잔류를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게 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알투베의 에스트로스, 양키스 꺾고 다저스와 WS

휴스턴 에스트로스가 벼랑 끝 승부에서 뉴욕 양키스를 꺾고 12년 만에 월드 시리즈에 진출했다.

휴스턴은 22일 미국프로야구 2017 메이저리그 포스트시즌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시리즈(ALCS·7전 4승제) 7차전에서 뉴욕 양키스를 4-0으로 제압했다.

3승 3패의 몰락할 수 없는 승부에서 메이저리그 최고의 명문 구단 양키스를 꺾고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 승자인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대망의 월드 시리즈에서 맞붙게 됐다.

휴스턴이 월드시리즈에 진출한 것은 2013년 아메리칸리그로 옮긴 후 처음, 팀

전체로는 2005년 이후 12년 만이다. 당시 휴스턴은 시카고 화이트삭스에 4전 전패를 당했다. 1962년 창단한 휴스턴은 아직 월드시리즈 우승 경험이 없다.

한편 다저스는 지난 20일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NLCS·7전 4승제) 5차전에서 엔리케 에르난데스의 3홈런 7타점 대활약에 힘입어 시카고 컵스를 11-1로 대파하며 1988년 이후 29년 만에 월드시리즈를 노리게 됐다.

지난해 챔피언십시리즈에서 컵스에 2승 4패로 패한 다저스는 시리즈 전적 4승 1패로 1년 만에 빛을 잡았다.

/연합뉴스